

[傷寒論]의 세 가지 承氣湯證에 대한 四象醫學的 考察

李 時 雨*

I. 序 論

[傷寒論]의 세 가지 承氣湯證은 傷寒 陽明腑證을 말한다. 陽明腑證은 체내 潮熱과 腸中の 有形한 찌꺼기(糟粕)가 서로 결합한 마른 대변(燥屎)으로 인해 체내순환이 저해되어 [大便不通(大便秘結) 潮熱語 腹滿硬痛 手足 然汗出 脈沈實有力...]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군이다. 상한론에서는 이에 대한 처방으로 下法을 제시하였는데, 이 下法의 가장 대표적인 처방이 대승기탕, 소승기탕, 조위승기탕의 세 가지 승기탕이다. 이들은 처방명을 비롯해서 처방구성 및 그 적응증도 매우 유사하다. 李東垣(1180-1251)은 이들 승기탕에 대해 “下藥 중에서 대승기탕은 가장 강력하며 소승기탕은 그 다음이고 조위승기탕은 또 그 다음이다...”라며 세 가지 승기탕의 비슷하지만 다른 효능을 제시하였다¹⁾.

한편 사상의학은 19세기 말, 조선의 李濟馬(1837-1900)가 창시한 의학으로서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4가지의 서로 다른 체질이 있다는 전제하에

기존 한의학을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이제마는 그의 著書 (東醫壽世保元)에서 [상한론]을 비롯한 과거 宋·元·明 諸醫들의 醫論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덧붙임으로써 이들 병증론을 사상의학적 시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그가 천명한 4가지 체질의 병리를 제시하였다. 이 중 과거 辨證醫學 및 사상의학에서 규명하지 못한 太陽人의 病證을 제외한 나머지 세 체질의 병증론 末尾에 과거의 처방 중 해당 체질에 쓰여졌던 처방들을 각각 분류하여 써 놓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마는 상한의 세 가지 승기탕증을 분류하여 대승기탕과 소승기탕을 (張仲景 傷寒論中少陰人病經驗設方藥二十三方)에 넣고, 조위승기탕은 (張仲景 傷寒論太陰人病經驗設方藥四方)에 포함시켰다. 사상의학에서 태음인과 소음인은 완전히 다른 병증약리를 가지고 있는 별개의 체질이다.

이렇듯 사상의학적으로 판이한 두 체질인 태음인과 소음인에 辨證醫學적으로 효능이 유사한 세 가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4학년

1. 下藥大承氣最緊小承氣次之調胃承氣又次之... [東醫寶鑑], (雜病-寒-傷寒裏證).

지 승기탕이 따로 분류되었다는 점에 대해 많은 의심이 가지만 이제마 자신이 [동의수세보원]에 구체적으로 지정한 바가 없고, 또한 지금까지 특별히 연구된 바가 없기에 문헌조사를 통하여 그 이유를 窮究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과거 한의학에 비해 이제마의 사상의학에는 보다 뚜렷한 '陰陽觀的 論理'가 담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동의수세보원의 체계는 과거 辨證醫學의 醫論을 제시한 뒤, 그에 대해 사상의학적으로 재해석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에 주목하여 본 논문에서도 비슷한 형식을 취해서 그의 사상의학적 시각을 조명해 보기로 하였다. 즉 과거 의서에서 세 가지 승기탕증 중 특히 大便不通과 관련된 항목을 선별하여 이를 분류하고 고찰하여 사상의학적인 재해석을 가해 보았다.

대상 의서는 [상한론]과 [동의보감]으로 정했다. 이것은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세 가지 승기탕증이 [상한론]에서 첫 선을 보였다는 의사학적 의의도 있으며, 한편 [동의수세보원 의원론]에서 장중경, 허준 등을 역대 의가들 중 가장 으뜸으로 삼았다²⁾는 점에서 사상의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서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III. 本 論

인용 순서는 연대순으로 하여 [상한론]의 항목을 먼저 인용하고, 그 다음에 [동의보감]의 항목을 인용하였으며, 이어서 [동의수세보원]에서 소음인 및 태음인 병증론 가운데 '大便不通'과 관계 있는 항목을 인용하였다.

1. 傷寒論

(1) 大承氣湯

◎ 양명병에 비록 맥이 遲하여도 땀이 나고, 惡寒하지 아니한 자는 그 몸이 반드시 무겁고 短氣하며 腹滿하면서 숨이 차고 潮熱이 있는 자는 이것은 外證이 풀리고자 함이니 裏를 攻할 수 있다. 손과 발에 축축하게 땀이 나는 자는 이것은 대변이 이미 굳은 것이니 대승기탕이 이를 主治한다. 만약 땀이 많아도 조금 發熱惡寒한 자는 外證이 풀리지 아니한 것이고, 그 熱도 潮하지 아니 하니, 승기탕을 주지 못한다. 가령 腹部가 大滿하여 통하지 못한 자는 소승기탕을 주어서 약간 胃氣를 和하게 하고 크게 泄下시키지는 말아야 한다³⁾.

◎ 양명병에 潮熱하고 대변이 약간 굳은 자는 대승기탕을 줄 것이나, 굳지 아니한 자는 이것을 주지 못한다. 만약 대변보지 못한 6-7일에 燥屎가 있을까 염려하여 알고자 하는 방법은 소승기탕을 조금 준다. 복용후 방귀가 나온다면 燥屎가 있는 것이니 이것을 攻하는 것이 옳고, 만약 방귀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면 대변의 처음만 굳고 뒤에는 묽을 것이니, 이것은 攻하지 못한다. 이것을 攻

2. 若以醫家勤勞功業論之則當以張仲景朱肱許浚爲首而李 信次之.

3. 陽明病 脈遲 雖汗出不惡寒者 其身必重 短氣 腹滿而喘 有潮熱者 此外欲解 可攻裏也 手足 然汗出者 此大便已硬也 大承氣湯主之 若汗多 微發熱惡寒者 外未解也 其熱不潮 未可與承氣湯 若腹大滿不通者 可與小承氣湯 微和胃氣 勿令至大泄下

하면 반드시 腹滿하여 능히 먹지 못한다. 물을 마시고자 하는 자는 물을 주면 딸꾹질하고, 그 뒤에 발열한 자는 반드시 대변이 굳고 적으니 소승기탕으로 이것을 和하게 하고, 방귀가 나오지 아니한 자는 조심하여 攻하지 못한다⁴⁾.

◎ 상한병을 혹 吐시키고 혹 下시킨 뒤에 병이 풀리지 아니 하여 대변을 5-6일 이상 10여일 까지 보지 못하고, 日沒을 전후하여 潮熱이 나고, 惡寒하지는 하니 하며, 혼자서 중얼거리되 괴이한 귀신의 양상을 본 것 같이 한다. 만일 심한 자는 그 증이 발작한 즉 의식이 昏冒하여 사람을 감별하지 못하고 옷깃을 만지며 의자를 더듬고 겁내는 듯 떨면서 불안감을 가지고 약간 숨이 차며, 눈동자가 바로 박히어 直視한다. 이런 경우 맥이 弦한 자는 살고 맥이 한 자는 사망하며, 병이 微한 자는 다만 발열하고 헛소리를 하는 자는 대승기탕이 이를 主治하나 가령 한 번 복용하여 대변이 利하면 그 뒤의 복용은 중지한다⁵⁾.

◎ 양명병에 譫語하고 潮熱이 있으며, 煩하여 먹지 못한 자는 胃中에 반드시 燥屎5-6枚가 있는 것이니 대승기탕이 이를 主治한다. 만일 능히 먹는 자는 다만 糞을 뽀이다⁶⁾.

◎ 땀이 나고 譫語한 자는 燥屎가 胃中에 있기 때문이니 이것을 風이라 한다. 이것은 瀉下시켜야

하지만 過經하여서 下시키는 것이 좋다. 이것은 瀉下하면 나오니 대승기탕이 마땅하다. 瀉下시키기를 만일 早期에 하면 말이 반드시 착란될 것이니 表는 虛하고 裏는 實하기 때문이다⁷⁾.

◎ 二陽이 并病하였다가 太陽證은 罷하고 다만 潮熱을 발하며 수족에 축축하게 땀이 나고, 대변이 어려우면서 語하는 자는 대승기탕이 적당하다⁸⁾.

◎ 양명병에 이를 下시켰으나 胸中이 懊惱하면서 煩하고 腸胃中에 燥屎가 있는 자는 攻下하는 것이 옳다. 복부가 조금 滿하면 대변이 처음에는 굳으나, 뒤에는 墜연코 묽을 것이니, 이것을 攻下하여서는 안된다. 만일 燥屎가 있는 자는 대승기탕이 좋다⁹⁾.

◎ 크게 下시킨 후 6-7일에 대변을 보지 못하고 煩熱이 풀리지 아니하며 배가 滿하고 아픈 자는 燥屎가 있는 것이다. 이는 본래 宿食이 있기 때문이다. 대승기탕이 좋다.

◎ 病人이 소변은 잘 나오지 아니하고 대변보기는 잠시 곤란하기도 하며 잠시 용이하기도 하고 때로 微熱이 있으며 喘冒하여서 잘 눕지 못하는 자는 燥屎가 있는 것이니 대승기탕이 좋다¹¹⁾.

◎ 병을 얻은 2-3일에 맥이 약하고 太陽證과 柴胡證이 없고 煩躁하며 心下가 단단하고 4-5일에 이르러 비록 잘 먹으나 소승기탕을 조금씩 주어 약간

4. 陽明病 潮熱 大便微硬者 可與大承氣湯 不硬者 不可與之 若不大便六七日 恐有燥屎 欲知之法 少與小承氣湯 湯入腹中 轉失氣者 此有燥屎也 乃可攻之 若不轉失氣者 此但初頭硬 後必 不可攻之 攻之必脹滿不能食也 欲飲水者 與水則 其後發熱者 必大便便硬而少也 以小承氣湯和之 不轉失氣者 慎不可攻也. (218)

5. 傷寒若吐 若下後不解 不大便五六日 上至十餘日 日晡所發潮熱 不惡寒 獨語如見鬼狀 若劇者 發則不識人 循衣摸牀 而不安 微喘直視 脈弦者生 者死 微者 但發熱 語者 大承氣湯主之 若一服利 則止後服. (222)

6. 陽明病 語 有潮熱 反不能食者 胃中必有燥屎五六枚也 若能食者 但硬耳 宜大承氣湯主之. (225)

7. 汗出 語者 以有燥屎在胃中 此爲風也 須下之 過經乃可下之 下之若早 語言必亂 以表虛裏實故也 下之愈 宜大承氣湯. (227)

8. 二陽併病 太陽證罷 但發潮熱 手足 汗出 大便難而 語者 下之則愈 宜大承氣湯. (230)

9. 陽明病 下之 心中懊 而煩 胃中有燥屎者 可攻 腹微滿 初頭硬 後必 不可攻之 若有燥屎者 宜大承氣湯. (247)

10. 大下後 六七日不大便 煩不解 腹滿痛者 此有燥屎也 所以然者 本有宿食故也 宜大承氣湯. (250)

11. 病人小便不利 大便乍難乍易 時有微熱 喘冒不能臥者 有燥屎也 宜大承氣湯. (251)

이것을 柔和하게 하여 조금 편안하게 하고, 5-6일에 이르면 소승기탕 1升을 주고 만일 대변을 못한 6-7일에 소변이 적은 자는 비록 잘 먹지 못하나 단지 첫머리만 굳고 뒤엔 반드시 묽을 것이다. 채 굳어지지 아니하여서 이것을 攻下하면 반드시 묽어진다. 소변이利하여 변이 정히 굳어진 때를 기다려서야 이것을 치는 것이 옳으니 대승기탕이 적당하다¹²⁾.

◎ 傷寒 6-7일에 눈이 明了하지 못하고 目睛이 和하지 아니하며 表證이나 裏證이 없고 대변이 어려워지며 몸에 微熱이 있는 자는 實證이 된 것이니 급히 下시켜야 한다. 대승기탕이 좋다¹³⁾.

◎ 소음병의 6-7일에 배가 脹滿하고 대변보지 못하는 자는 이를 급히 下시켜야 하니 대승기탕이 적당하다¹⁴⁾.

(2) 小承氣湯

◎ 양명병에 그 사람 땀이 많아서 진액이 밖으로 새어 胃中이 燥하면 대변이 반드시 굳고, 굳으면 語한다. 소승기탕이 이를 주치하나 만일 一服하여 헛소리가 그치면 더 이상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¹⁵⁾.

◎ 양명병에 譫語하고 潮熱을 발하며 맥이 滑하면서 빠른 자는 소승기탕이 이를 主治하나 승기탕을 1升 쯤 주어서 방귀가 나오는 자는 다시 1升을

복용케 하고, 만일 방귀가 나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주지 말아야 한다. 그 이튿날 대변보지 못하나 맥이 도리어 微澁한 자는 裏가 虛한 것이다. 難治가 되니 다시 승기탕을 주어선 안된다¹⁶⁾.

◎ 태양병을 汗吐下 三法으로 다스려 조금 煩하고 소변이 頻數하며 대변이 굳어진 자는 소승기탕을 주어 이것을 和하게 하면 낫는다¹⁷⁾.

◎ 下利하되 譫語하는 자는 燥屎가 있는 것이니 소승기탕이 적당하다¹⁸⁾.

(3) 調胃承氣湯

◎ 發汗 후 惡熱하는 것은 虛하기 때문이고 惡寒하지 아니하고 다만 惡熱하는 것은 實하기 때문이다. 마땅히 胃氣를 和하게 해야 하니 조위승기탕이 이를 主治한다¹⁹⁾.

◎ 상한병이 13일이 되어도 풀리지 아니하고 경과하여 헛소리를 하는 것은 열이 있기 때문이다. 마땅히 湯劑로 설사시켜야 한다. 만일 소변이 잘 나오는 자는 대변이 굳어야 할 것인데 반대로 설사를 하고 맥박이 조화로운 것은 의사가 환약으로 설사시킨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니 이는 치료를 잘못된 것이다. 만일 설사하는 자는 맥박이 당연히 미하고 사지가 쫄냉할 것인데 지금 반대로 조화로운 것은 내부가 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조위승기

12. 得病二三日 脈弱 無太陽柴胡證 煩躁 心下硬 至四五日 雖能食 以小承氣湯 少少與 微和之 令小安 至六日 與承氣湯一升 若不大便六七日 小便少者 雖不受食 但初頭硬 後必 未定成硬 攻之必 須小便利 屎定硬 乃可攻之 宜大承氣湯. (260)

13. 傷寒六七日 目中不了了 睛不和 無表裏證 大便難 身微熱者 此爲實也 急下之 宜大承氣湯. (261)

14. 少陰病 六七日 腹脹 不大便者 急下之 宜大承氣湯. (322)

15. 陽明病 其人多汗 以津液外出 胃中燥 大便必硬 硬則 語 小承氣湯主之 若一服 語止者 更莫復服. (213)

16. 陽明病 語 發潮熱 脈滑而疾者 小承氣湯主之 因與承氣湯一升 腹中轉失氣者 更服一升 若不轉失氣者 勿更與之 明日不大便 脈反微者 裏虛也 爲難治 不可更與承氣湯也. (214)

17. 太陽病 若吐 若下 若發汗後 微煩 小便數 大便因硬者 與小承氣湯 和之愈. (250)

18. 下利 語者 有燥屎也 宜小承氣湯. (382)

19. 發汗後 惡寒者 虛故也 不惡寒 但熱者 實也 當和胃氣 與調胃承氣湯. (71)

탕이 이를 주치한다²⁰.

⊙ 태양병이 過經한 10여일 에 心下가 매식매식 하여 吐코자 하고 胸中이 아프면서 대변은 도리어 무르고 복부는 약간 가득하며, 답답하고 조금 煩熱한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를 먼저 급히 吐下시킨 자는 조위승기탕을 투여하고, 만일 그렇지 아니한 자는 투여하지 못한다. 다만 嘔吐코자 하고 胸中이 아프며, 微V 한 것은 이것이 柴胡證이 아니다. 嘔코자 한 관계로 極히 吐下시킨 줄을 안다²¹.

⊙ 양명병에 吐法도 下法도 쓰지 않았는데 心煩한 자는 조위승기탕을 쓴다²².

⊙ 태양병 3일에 발한시켜도 풀리지 않고, 열이 후끈후끈 발하는 자는 胃에 속한다. 조위승기탕이 이를 주치한다²³.

(4) 病證整理

이상에서 살펴 본 내용을 통해 제시된 증상들 중에서 각 탕증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증상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대승기탕증

大便不通, 汗出(自汗, 手足汗), 潮熱(日晡潮熱), 腹滿, 煩躁, 語

2) 소승기탕증

大便不通, 自汗, 潮熱, 語

3) 조위승기탕증

大便不通, 惡熱, 心煩, 欲吐, 蒸蒸發熱

2. 東醫寶鑑

[동의보감]에서는 [상한론]에 비해 매우 많은 쓰임예를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을 모두 인용하기보다는 가급적 본 논문의 취지에 맞도록 '大便不通'과 관련된 것만을 인용하였다. 이때, 세 가지 승기탕이 下劑로서 동일하게 취급된 경우는 제외하였다.

(1) 大承氣湯

〈內經-小便-關格宜吐瀉〉

⊙ 어떤 부인이 갑자기 토하고 대소변이 막혀서 몹시 煩亂하며 팔다리가 점점 싸늘해지고 맥이 끊어지려고 하였다. 그래서 대승기탕 1첩을 먹었는데 밤중이 되어 대변이 나오고 맥이 점차 和해지더니 다음날에는 나왔다. 관격병은 매우 고치기 힘든 병인데 이 병으로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단지이 사람뿐이다²⁴.

〈雜病-寒-傷寒胸腹痛〉

⊙ ... 만일 아랫배에서 배꼽 둘레까지 뚝뚝하고 아프며 오줌이 잘 나가지 않고 대변이 굳은 것은 마른 대변이 있는 것이다. 이때는 대승기탕으로 설사시킨다(의감)²⁵.

〈雜病-寒-傷寒裏證〉

⊙ 만일 惡寒은 없고 오히려 열을 싫어하며 갈증

20. 傷寒十三日不解 過經 語者 以有熱也 當以湯下之 若小便利者 大便當硬 而反下利 脈調和者 知醫以丸藥下之 非其治也 若自下利者 脈當微厥 今反和者 此爲內實也 調胃承氣湯主之. (109)

21. 太陽病 過經十餘日 心下溫溫欲吐而胸中痛 大便反 腹微滿 鬱鬱微煩 先此時 自極吐下者 與調胃承氣湯 若不爾者 不可與 但欲嘔 胸中痛 微者 此非柴胡證 以嘔故知極吐下也. (130)

22. 陽明病 不吐 不下 心煩者 可與調胃承氣湯. (216)

23. 太陽病三日 發汗不解 蒸蒸發熱者 屬胃也 調胃承氣湯主之. (257)

24. 一婦人忽吐逆大小便不通煩亂四肢漸冷無 與大承氣湯一劑至夜半漸得大便通 漸和翌日乃安此關格之病極爲難治垂死而活只此一人耳(孫兆).

25. ... 若小腹 臍硬痛小便澁大便實者有燥屎也大承氣湯下之(醫鑑).

이 나고 헛소리를 하며 배가 그득하면서 숨이 차며 손발에 축축하게 땀이 날 때에는 빨리 설사시켜야 하는데 대승기탕을 쓴다. 邪氣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으나 마른 대변이 있는 것 같고 아랫배가 아플 때에는 소승기탕을 약간 써서 胃를 조화시켜야지 세게 설사시켜서는 안 된다. 만일 오한은 없고 대변이 막혔을 때에는 반드시 胃氣를 조화시켜야 하는데 조위승기탕을 쓴다(동원)²⁶.

〈外形-頭-下法〉

◎ 頭風證을 심하게 오랫동안 앓으면 눈앞이 아찔해지고 한쪽 곱이 아프다. 그리고 오래되면 눈두덩이 작아지고 대변이 몹시 굳어진다. 이런 때에는 다 대승기탕으로 설사시키는 것이 좋다(자화)²⁷.

〈外形-胸-心痛〉

◎ 積熱이 몰려서 心을 침범하였거나 暑毒이 心에 들어가서 얼굴과 눈이 붉고 누르며 몸에 열이 나고 煩躁해 하며 손바닥이 달고 대변이 굳어진 데는 연부육일탕, 금령자산, 사궁산, 치강음을 쓴다. 그것이 심한 데는 대승기탕을 써서 설사를 시킨다(입문)²⁸.

〈雜病-火-惡熱惡寒〉

◎ (經)에는 “惡寒이 나서 몸을 떠는 것은 다 熱에 속한다”고 써어 있다. (原病式)에는 “열병을 앓으면서 도리어 추워하는 것은 실지는 寒證이 아니

다”고 써어 있다. 옛사람들이 몹시 떠는 증상에 대승기탕으로 굳은 대변을 설사시켜 낮게 한 것을 보더라도 확실히 열증이다(내경)²⁹.

〈雜病-用藥-約方猶約囊〉

◎ (靈樞)에 “처방을 요약하는 것이 주머니를 줄라매듯이 해야 한다”고 써어 있다. 주머니가 가득 찼을 때 줄라매지 않으면 쏟아질 것이고 처방을 구성할 때 요약하지 않으면 목적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중경이 “桂枝湯으로는 風邪에 감촉된 것을 치료하되 한번 써서 땀이 나고 나오면 더 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대승기탕으로 대변이 몹시 굳고 배가 몹시 그득한 것을 치료하되 설사가 나면 약이 남았다고 하여도 더 쓰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을 보아 약을 쓸 때 얼마나 조심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주머니를 줄라매듯 하라고 한 옛 사람들의 뜻을 잘 알고 한 말이다(보감)³⁰.

(2) 小承氣湯

〈雜病-寒-少陰形證用藥〉

◎ 少陰의 本은 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병이 생기면 혀와 입이 마르고 흑 물 같은 설사를 하며 헛소리를 하고 대변이 막힌다. 이런 데는 소승기탕을 쓴다...(입문)³¹.

〈雜病-寒-陽明病惡候〉

◎ 어떤 사람이 상한을 만나서 대변을 보지 못하

26. 如不惡寒反惡熱發渴 語腹滿而喘手足 然汗出急下之宜大承氣湯如邪未深恐有燥屎小腹滿宜用小承氣微和胃氣勿令大泄如不惡寒但實者當和胃氣調胃承氣主之(東垣).

27. 頭風之甚者久則目昏偏頭痛久則目小大便秘澁皆宜大承氣湯下之(子和).

28. 積熱攻心暑毒入心面目赤黃身熱煩躁掌中熱大便堅宜連附六一湯金鈴子散莎芎散梔薑飲甚者大承氣湯下之(入門).

29. 經曰惡寒戰慄皆屬於熱原病式曰病熱而反覺自冷實非寒也古人遇戰慄之證有以大承氣下燥糞而愈者明是熱證耳(內經).

30. 靈樞曰約方猶約囊也囊滿不約則輸泄方成不約則神與氣不俱故仲景以桂枝湯治外感風邪則曰若一服汗出病 停後服不必盡劑大承氣湯下大實大滿則曰得更衣止後服不必盡劑其慎之如此此爲大戒蓋得聖人約囊之旨也(寶鑑).

31. 少陰心爲本故舌乾口渴或下利清水 語便閉宜小承氣湯...(入門).

고 해질 무렵이 되면 조열이 나며 헛손질을 하고 곧추 보며 몹시 숨차 하였는데 여러 의사들이 다 치료하지 못할 증상으로 인정하였다. 중경은 “이런 증은 있지만 치료하는 방법은 없다고 하면서 맥이 弦하면 살고 濇하면 죽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소승기탕을 한번 먹이니 대변이 풀리고 여러 가지 증상도 점차 풀렸으며 맥이 약간 현해지면서 반 달 만에 나왔다... [본사]³²⁾.

(3) 調胃承氣湯

〈內景-小便-關格宜吐瀉〉

◎ 어떤 어린이가 오줌이 나오지 않아 울면서 왔다 갔다하다가 어떻게 해서 오줌이 나왔는데 모래 같은 것이 섞여 나왔다. 그리고 대변이 굳으면서 향문이 1-2寸이나 빠져 나왔다. 戴人이 “이것은 下焦가 막힌 것이다. 그런데 吐하게 하지 않거나 泄瀉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下焦가 열릴 수 있으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오줌이 나올 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이 조위승기탕 40g에 견우자 말물가루 12g을 넣어서 강물에 달여 먹인 다음 瓜 가루를 밀가루풀에 반죽해서 겨자씨 만하게 알약을 만들어 한번에 60알을 먹이는 것이었다. 그러자 토하고 설사를 하여 한꺼번에 다 나왔는데 고름도 있고 피도 있었다. 토하는 것과 설사하는 것이 거의 멎었을 때 물을 한번에 1잔씩 20-30번 마시게 하였는데 병이 씻은 듯이 나왔다[자화]³³⁾.

〈雜病-寒-傷寒 語鄭聲〉

◎ 대소변이 잘 나가고 손발이 차며 맥이 微細하면 반드시 자주 응얼거린다. 이때는 백통탕을 쓰는 것이 좋고 대변이 굳고 오줌이 붉으면 손발이 덥고 맥이 洪數하면 반드시 헛소리하는데 이때는 조위승기탕을 쓰는 것이 좋다[활인]³⁴⁾.

〈雜病-消渴-消渴有三〉

◎ 中消란 음식을 잘 먹으면서도 여위고 저절로 땀이 나며 대변이 굳고 오줌이 짙은 것인데 이것을 이라고 한다. 이것이 消中으로 된다. 이런 데는 조위승기탕, 가감삼황원을 주로 쓴다[저방]³⁵⁾.

〈雜病-寒-陽明形證用藥〉

◎ 陽明經에서는 大腸이 標가 되고 대장은 肺와 表裏관계가 된다. 오한이 약간 나고 열이 나는 것은 經에 병이 생긴 것이므로 갈근해기탕을 쓰고 갈증이 나면서 땀이 나는 데는 백호탕을 쓴다. 胃는 本이 되므로 여기에 병이 생기면 눈이 아프고 코가 마르며 조열이 나고 땀이 나며 대변이 막히고 오줌이 잘 나오지 않으며 배가 그득하고 갈증이 나며 미쳐서 헛소리를 한다. 이런 데는 조위승기탕을 쓴다[입문].

◎ 陽明에서 肌肉 사이는 表가 되고 胃府는 裏가 된다. 그러므로 표에 열이 있으면 눈이 아프고 잠을 자지 못하는데 이런 데는 갈근해기탕을 쓰고 속에 열이 있으면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데 이런 데는

32. 一人病傷寒大便不利日晡發熱手足攣衣縫兩手撮空直視喘急諸醫皆走此誠惡候仲景雖有證而無法但云 弦者生 者死 且救之與小承氣湯一服而大便秘諸疾漸退 且微弦半月愈...〈本事〉.
33. 一小兒小 不通號跳旋轉下則成砂石大便秘肛門脫出一二寸戴人曰此下焦寒也不吐不下則下焦何以開不令飲水則小 何以利以調胃承氣湯一兩加牽牛子頭末三錢河水煎服又用苳 末糊丸芥子許六十九吞上下吐下瀉一時齊出有膿有血涌泄既定令飲新水二三十次每次飲一盞其病如失〈子和〉.
34. 大小便利手足冷 微細者必鄭聲宜用白通湯大便秘小便赤手足溫 洪數者必 語宜用調胃承氣湯〈活人〉.
35. 中消者善食而瘦自汗大便硬小便數所謂 成爲消中者是也調胃承氣湯 加減三黃丸主之...〈諸方〉.

조위승기탕을 쓴다(입문)³⁶.

〈雜病-寒-陽明實證宜下〉

◎ 땀이 저절로 나면서 대변은 막히고 오줌은 벌거머 손발이 따듯하고 맥이 洪數하며 헛소리를 하는 것은 반드시 腸胃 속에 마른 대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데는 조위승기탕을 써서 설사시켜야 한다(활인)³⁷.

〈外形-腹-熱腹痛〉

◎ 쌓인 열로 배가 아팠다 멧었다 하며 아픈 부위가 달고 손을 가까이 대지 못하게 하며 찬 것을 좋아하고 대변이 막힌 데는 조위승기탕, 사순청량음을 쓴다(입문)³⁸.

(4) 病證整理

이상 [동의보감]에서 참고한 항목들에 대해 그 적응증을 보면 대략 아래 표와 같다.

표 1. 동의보감내 세 가지 승기탕증의 비교정리

	적응증
대승기탕	大便不通, 關格, 頭風, 偏頭痛, 胸痛, 手足汗, 發狂, 語, 腹滿, 潮熱, 陽厥, 陽毒, 風, 食滯, 咳嗽, 少陰病脈沈
소승기탕	大便不通, 潮熱
조위승기탕	大便不通, 癩疹, 目疼, 鼻乾, 不眠, 消渴, 咳嗽, 齒痛, 面熱, 四肢不用

3. 東醫壽世保元

[동의수세보원]에서는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과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제시된 大便不通 관련 항목을 정리해 보았다.

(1)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 장중경이 말하기를 “양명병이란 胃家實이 되는 것이다.” 하니, 이에 어떤 사람이 묻기를 “무슨 연유로 해서 양명병을 얻게 되는가? “대답하기를 “태양병에 땀을 많이 내거나 설사를 심하게 하거나 소변이 너무 통하게 되면 津液이 고갈되어 위 속이 마르게 된다. 따라서 양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니, 대변이 불통하게 되는 것을 양명병이라고 한다.” 했다.³⁹

◎ 상한이 양명으로 옮겨지게 되면 그 사람은 끈끈하게 微汗이 난다.⁴⁰

◎ 상한에 만약 토하고 설사를 한 뒤에도 병이 풀리지 않으며, 大便不通이 5,6일에서 10여일에 이르고, 저녁때가 되면 열이 심히 오르고, 오후는 없으면서도 허개비를 본 것처럼 헛소리를 하며, 심하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옷을 더듬고 이불을 더듬으며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불안해하며, 가볍게 승차고 눈동자를 곧추세운다. 이런 경우에 맥이 弦하면 살고 맥이 澁하면 죽는다.⁴¹

36. 陽明者大腸爲標與肺爲表裏故微惡寒發熱爲經病宜葛根解肌湯渴而有汗者宜白虎湯胃爲本目疼鼻乾潮汗閉澁滿渴狂 宜調胃承氣湯〈入門〉 陽明以肌肉之間爲表胃府爲裏熱在表則目疼不眠宜葛根解肌湯熱入裏則狂 宜調胃承氣湯〈入門〉.

37. 自汗出大便秘小便赤手足溫 洪數 語者必有燥糞在胃中調胃承氣湯下之〈活人〉.

38. 積熱腹痛時作時止痛處亦熱手不可近便閉澁宜調胃承氣湯四順清涼飲〈入門〉.

39. 張仲景曰 陽明之爲病 胃家實也 問曰 緣何得陽明病 答曰 太陽病 發汗 若下 若利小便者 此 亡津液 胃中乾燥 因轉屬陽明 不更衣 內實 大便難者 此 名陽明病也.

40. 傷寒 轉屬陽明 其人 然微汗出也.

41. 傷寒 若吐 若下後 不解 不大便 五六日至十餘日 日晡所發潮熱 不惡寒 狂言 如見鬼狀 若劇者 發則 不識人 循衣摸床 而 不安 微喘直視 脈弦者 生 脈者 死.

◎ 나는 말하기를. 진·한 시대의 醫方에 있어 대변이 秘燥한 자에게 대황으로 다스리는 방법은 있었어도 파두로 다스리는 방법은 없었다. 그러므로 장중경도 역시 大黃大承氣湯으로 소음인의 태양병이 양명병으로 옮겨진 것을 다스렸다.

환자가 微汗이 있고, 위 속이 건조해서 大便不通이 5,6일에서 10여일에 이르며, 해질 무렵에는 열이 심히 오르고, 오한은 없으나 허깨비를 본 것처럼 헛소리를 할 경우에 이 약을 쓰면 실효하다. 만약 병세가 극심하여 발작하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옷과 이불을 더듬으며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불안해하며, 약간 숨이 차고 눈동자를 곧추세우는 것이니 이런 경우에 이 약을 쓰면 맥이 弦한 사람은 살아나고 맥이 濡한 사람은 다 죽는다고 한다. 대개 이 처방은 태양병이 양명병으로 옮겨져서 大便不通이 5,6일에 이르고, 해질 무렵이면 심한 열이 오르는 것(潮熱)에만 쓸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쓰지 못한다.

중경은 이 처방을 쓸 수 있는 경우와 써서는 안 될 경우를 잘 알고 있었으니, 또한 소음인의 태양, 양명병 증세를 소상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대체로 중경은 일심정력을 모두 대승기탕을 쓸 수 있는 경우를 찾아내기에 기울었던 것이니, 따라서 써서는 안 될 경우도 또한 밝게 알았던 것이다. 중경의 태양, 양명병 처방 중에서 계지탕이나 인삼

계지탕 같은 것은 매우 근사한 약이라 하겠으나 대승기탕은 사람의 死生을 점칠 수 없는 처지에까지 내버려두어서 반드시 대승기탕을 쓸 수 있는 시기를 구하며, 大便不通이 5,6일에 이르고, 해질 무렵에는 심한 열이 오르며 허깨비를 본 것처럼 헛소리를 할 때까지 기다리니 이것이 어찌 아름다운 방법이라 할 수 있겠는가. 대저 소음인의 증세에 땀이 저절로 나지 않으면 脾臟이 약한 것이 아니요, 대변이 秘燥하면 이것은 胃가 實한 것이다.

소음인의 태양, 양명병에 땀이 저절로 나지 아니하여 비장이 약하지 않은 것은 가벼운 증세이니, 대변이 비록 굳다 하더라도 약을 쓰기만 하면 쉽게 낫는다. 그러므로 대황·지실·후박·망초 등의 약이 이런 경우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병이 극심하면 半生半死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팔물군자탕이나 승양익기탕에다 巴豆丹을 함께 쓴다면 비록 병이 극심한 자라하더라도 또한 맥이 弦한 자는 살고 맥이 濡한 자는 죽는다는 이치가 없을 것이다. 또 태양병 표증이 아직 남아 있을 때에 어찌하여 진작 溫補升陽하는 약을 파두와 함께 써서 미리 도모하지 않고, 반드시 양명병으로 옮겨져서 해질 무렵에 심한 열이 오르고 헛소리를 하게 되기를 기다려 승기탕을 씌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반생반사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만든단 말인가⁴²⁾.

42. 論曰 秦漢時 醫方治法 大便秘燥者 有大黃治法 無巴豆治法 故 張仲景 亦用大黃大承氣湯 治少陰人 太陽病轉屬陽明病 其人 然微汗出 胃中燥煩實 不大便 五六日至十餘日 日晡所發熱 不惡寒 狂言 如見鬼狀之時而 用之則 神效 若劇者 發則 不識人 循衣摸床 而不安 微喘直視 用之於此則 脈弦者 生 脈澀者 死 蓋 此方 治少陰人 太陽病轉屬陽明 不大便五六日 日晡所發熱者 可用而 其他則不可用也 仲景 知此方 有可用 不可用之時候 故 亦能昭詳 少陰人 太陽陽明病證候也 蓋 仲景 一心精力 都在於探得 大承氣湯可用時候 故 不可用之時候 亦昭詳知之也。
仲景 太陽陽明病 藥方中 惟桂枝湯 人蔘桂枝湯 得其彷彿而 大承氣湯則 置人於茫無津涯之中 必求大承氣湯可用時候而 待其不大便五六日 日晡發潮熱狂言時 是 豈美法也哉 蓋 少陰人病候 自汗不出則 脾不弱者 大便秘燥則 胃實也 少陰人 太陽陽明病 自汗不出 脾不弱者 輕病也 大便雖硬 用藥易愈也 故 大黃 枳實 厚朴 芒硝之藥 亦能成功於此時而 劇者 猶 有半生半死 若 用八物君子湯 升陽益氣湯 與巴豆丹則 雖劇者 亦無脈弦者生 脈澀者死之理也 又 太陽病 表證因在時 何 不早用溫補升陽之藥 與巴豆 預圖其病而 必待陽明病 日晡發潮熱 狂言時 用承氣湯 使人 半生半死耶。

◎ 나는 말하기를. 앞에서의 논법들은 모두 장중경의 대승기탕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놓고 있다. 쓸 수 있고 쓸 수 없는 경우를 알기 어려워서 의혹이 분분하니 장중경의 믿을 수 없음을 비로소 알겠다. 장중경의 대승기탕은 원래 사람을 죽이는 약이지,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닌 만큼 대승기탕을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다. 胃家實病으로 대변을 보지 못하고 발광하는 증후에는 마땅히 파두 한 알을 복용시키거나 독삼팔물군자탕을 써야하며, 또는 먼저 파두를 복용시키고 나서 팔물군자탕으로 병을 누르기도 한다⁴³⁾.

(2)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

◎ 李ⁱ 이 말하기를 가벼운 오한과 발열이 있으면 갈근해기탕이 좋고, 눈이 아프고 콧속이 마르며, 潮熱과 自汗이 나고 대소변이 잘 내리지 않고 배가 부으며 갈증이 나고 미친 것처럼 헛소리를 하는 데는 조위승기탕이 좋다. 熱이 表에 있으면 눈이 아프며 잠을 자지 못한다. 여기에는 해기탕이 좋다. 熱이 裏로 들어가면 미친 것처럼 헛소리를 한다. 여기에는 조위승기탕이 좋다⁴⁴⁾.

◎ 공신이 말하기를 양명병(陽明病)은 눈이 아프고 코가 마르며 잠을 자지 못한다. 여기에는 갈근해기탕이 좋다⁴⁵⁾.

◎ 나는 말하기를 이상 모든 증에 오한이 나고 몹시 열이 나며 대변이 굳은 데는 마땅히 조각대황탕, 갈근승기탕을 쓸 것이다. 몸에 열이 나고 배가 팽만하며 설사하는데 熱이 승하면 裏證이니 마땅히 갈근해기탕을 쓸 것이며, 寒이 승하면 表證의 重證이니 마땅히 태음조위탕에 승마·황금을 가미하여 쓸 것이다⁴⁶⁾.

IV. 考 察

상한론의 병리전개상 관점의 특징은 사기가 6가지 질환군(三陰三陽病)으로 전변한다고 본 데에 있다. 이 중 본 논문의 주제와 관계가 깊은 양명병은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 하나는 太陽陽明인데, 이것은 땀이 저절로 나고 오름이 자주 나오는 증상으로 인해 체내 진액이 고갈되어 결국 大便不通이 된 경우로서 장중경은 이를 가리켜 '脾約'이라 하였다. 또 하나는 少陽陽明으로 이것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과도한 發汗과 利小便의 治法을 썼는데 이로 인해 환자의 胃中이 燥·煩·實해져서 大便不通이 된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正陽陽明인데 이것은 邪氣가 陽明經에 直中하여 大便不通이 된 것이다⁴⁷⁾.

43. 論曰 右論 皆以張仲景 大承氣湯 始作備而 可用不可用之候 難知 故 紛 多惑而 始知 張仲景之不可信也 張仲景 大承氣湯 元是殺人之藥而 非活人之藥則 大承氣湯 不必舉論 胃家實病 不更衣 發狂證 當用 巴豆全粒 或 用 獨參八物君子湯 或 先用 巴豆 後用 八物君子湯 以壓之.
44. 李 曰 微惡寒 發熱 宜葛根解肌湯 目疼 鼻乾 潮汗 閉澀 滿渴 狂 宜調胃承氣湯 熱在表則 目疼 不眠 宜解肌湯 熱入裏則 狂 宜調胃承氣湯.
45. 信曰 陽明病 目疼 鼻乾 不得臥 宜葛根解肌湯.
46. 論曰 右諸證 增寒壯熱 燥澀者 當用 角大黃湯 葛根承氣湯 頭面項頰 赤腫者 當用 角大黃湯 葛根承氣湯 體熱 腹滿 自利者 熱勝則 裏證也 當用 葛根解肌湯 寒勝則 表證而 太重證也 當用 太陰調胃湯 加升麻 黃芩.
47. 病有太陽陽明有正陽陽明有少陽陽明何謂也答曰太陽陽明者脾約是也正陽陽明者胃家實是也少陽陽明者發汗利小便胃中燥煩實大便難是也(仲景) 陽明之爲病胃家實也問曰緣何得陽明病答曰太陽病發汗若下若利小便者此亡津液胃中乾燥因轉屬陽明不更衣內實大便難者此名陽明病也(仲景)。(東醫寶鑑-雜病-寒-陽明病有三).

결국 태양양명, 소양양명, 정양양명은 '大便不通'이라는 증상에 대한 [상한론]적 관점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李東垣은 이에 대한 처방으로 태양양명은 대승기탕으로, 소양양명은 소승기탕으로, 정양양명은 조위승기탕으로 각각 치료한다고 하였다⁴⁸⁾.

우리는 본론에서 [상한론]과 [동의보감]에 기록된 세 가지 승기탕증에 관한 문장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대승기탕증 : 大便不通, 汗出(自汗, 手足汗), 潮熱(日晡潮熱), 腹滿, 煩躁, 譫語, 頭風, 偏頭痛, 胸痛手足汗, 發狂, 譫語, 食滯, 咳嗽

소승기탕증 : 大便不通, 自汗, 潮熱, 譫語

조위승기탕증 : 大便不通, 惡熱, 心煩, 欲吐, 蒸蒸發熱, 癩疹, 目疼, 鼻乾, 不眠, 消渴, 咳嗽, 齒痛, 面熱, 四肢不用

위에서 나열한 증상을 보면 소승기탕증은 대승기탕증과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고, 조위승기탕증은 유사하긴 하되, 그 쓰임이 약간 틀린 것을 알 수 있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동의수세보원]의 태음인리열증과 조위승기탕증은 상당부분 흡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점으로 인해 이제마가 조위승기탕을 태음인병경험방에 넣었을 리가 없다.

따라서 보다 원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고자 하였다.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에서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4가지 다른 체질이 있음을 천명하였다. 그 중 소음인은 腎大而脾小한 臟腑形局의 특징을 가진 체

질로서 체내에 陽暖之氣가 不足하고 陰寒之氣가 過多한 생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소음인에게 병증이 발현되면 체질적 약점인 陽暖之氣가 부족해지기 쉽다. 따라서 소음인은 무엇보다도 부족한 陽暖之氣를 보존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

태음인은 肝大而肺小한 장부형국의 특징을 가진 체질로서 폐의 呼散之氣가 부족해지기 쉬운 반면 간의 吸聚之氣는 과다해지기 쉬운 생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태음인에게 병증이 발현되면 체질적 약점인 呼散之氣가 더욱 위축되거나 간의 吸聚之氣가 과도해지기 쉽다. 따라서 태음인은 부족한 呼散之氣를 보존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

이제마는 체질별 병증을 논술하면서 소음인과 태음인의 大便不通증을 각각 [동의수세보원]의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과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에서 다루고 있다. 그는 소음인의 大便不通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말하기를, 장중경의 논한 바 양명의 세 가지 병에 있어, 첫째 脾約이라는 것은 땀이 저절로 나고 소변이 잦은 증세이고, 둘째 胃家實이라 하는 것은 不更衣라 하니 즉 대변이 잘 통하지 않는 증세이며, 셋째 땀을 내고 利尿를 시킴으로써 위 속이 심히 건조하다는 것이니 이것도 역시 胃家實인 것이니, 실제로는 세 가지 병이 아니라 두 가지 병인 것이다. 중경의 의견에 脾約이라고 한 것은 진액이 점점 고갈되어서 脾臟의 윤기가 점점 말라가는 것을 이름이요 胃家實이라는 것은 진액이 이미 고갈되어 위의 전체에 燥實이 심한 것을 말한 것이다.

中古로부터 전국·진·한 시대에 걸쳐 醫家の 단방 경험의 전해 온지 이미 오래이며, 그 중에서도 汗·吐·下의 세 방법이 비로소 성행되었다. 그러므로

48. 太陽陽明大承氣少陽陽明小承氣正陽陽明調胃承氣...〈東垣〉(東醫寶鑑-雜病-寒-傷寒治法)

태양병 표증이 계속 있는 사람을 혹 마황탕으로 땀을 내며 혹 저령탕으로 이뇨를 시키며 혹 승기탕으로 설사를 시켰다. 그런데 승기탕으로 설사를 시키면 설사가 멎지 않는 병증이 발생되고 마황탕과 저령탕을 땀을 내고 利尿를 시키면 위 속이 심히 건조하여 대변 보기 곤란한 병증이 발생된다.

仲景이 이런 것을 보았으므로 脾約은 땀이 나고 소변이 많이 나오는 데서 비롯되며, 비장의 운기가 점점 말라들면 또한 장차 胃가 燥煩하고 내실하게 된다고 논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脾約은 어디까지나 脾約이며, 胃家實은 어디까지나 胃家實로서 어찌 병이 먼저 脾約에서 시작되어 뒤에 胃家實에 이른다는 이치가 있겠는가.⁴⁹⁾

그는 이어서 脾約, 胃家實과 관련된 소음인의 병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胃家實과 脾約의 두 가지 병은 太陰病이나 少陰病과 같아서, 虛하고 實한 증상이 현저하게 다르다. 太陽病表證이 아직 있을 때로부터 이미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처음부터 合致되지 않는 것이다. 太陽病表證이 아직 있으면서 그 사람이 미친 것처럼 되는 것은 鬱狂證의 처음 증세이고, 양명병 胃家實에 대변이 不通되는 것은 鬱狂證의 중간 증세이며, 양명병에 潮熱이 생기고 헛소리를 하며, 가

법게 숨이 차고 눈을 곧추세워서 보는 것은 鬱狂證의 말기의 증세인 것이다. 太陽病에 열이 오르고 惡寒이 생기며, 땀이 절로 나는 것은 亡陽證의 처음 증세이고, 양명병에 惡寒이 나지 않고 도리어 惡熱이 생기며 땀이 저절로 나는 것은 망양증의 중간 증세이며, 양명병에 열이 오르고 땀이 많은 것은 亡陽의 말기 증상인 것이다.

무릇 鬱狂證이란 身熱이 있고 땀이 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며, 亡陽證이란 신열이 있고 땀이 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⁵⁰⁾

위 논술을 통해 이제마는 장중경이 말한 태양양명, 소양양명, 정양양명의 세 가지 양명병을 胃家實과 脾約의 두 가지로 요약하면서 소음인에 있어 胃家實과 脾約은 전혀 다른 병증임을 설명하였고, 또한 장중경이 양명병은 裏證이라고 한 것에 반박하며, 소음인에 있어 태양병과 양명병은 소음인의 표병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이제마는 소음인 표병을 ‘鬱狂’과 ‘亡陽’으로 새롭게 정리하였다⁵¹⁾.

울광과 망양의 初證을 제외한 中證과 末證엔 모두 大便不通이라는 증상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즉, 소음인 大便不通의 특징은 상한의 태양병표증 증상으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병이 진행됨에 따라 大便

49. 論曰 張仲景所論 陽明三病 一曰 脾約者 自汗出 小便利之證也 二曰 胃家實者 不更衣 大便難之證也 三曰 發汗利小便 胃中燥煩實者 此亦胃家實也 其實非三病也 二病而已 仲景 意脾約云者 津液漸竭 脾之潤氣 漸約之謂也 胃家實云者 津液已竭 胃之全局 燥實之謂也 中古戰國秦漢之時 醫家單方經驗 其來已久 汗吐下三法 始爲盛行 太陽病 表證因在者 或以麻黃湯 發汗 或以猪 湯 利小便 或以承氣湯 下之 承氣湯下之則 下利不止之證作矣 麻黃湯 猪 湯 發汗 利小便則 胃中燥煩 實大便難之證作矣 仲景 有見於此故 以脾約之自汗出 自利小便者 脾之潤氣 漸約 亦 將爲胃燥煩實之張本矣 然 脾約 自脾約也 胃家實 自胃家實也 寧有其病 先自脾約而後 至於胃家實之理耶

50. 胃家實 脾約 二病 如陰證之太陰 少陰病 虛實證狀 顯然不同 自太陽病 表證因在時 已爲兩路分岐 元不相合 太陽病 表證因在而 其人如狂者 鬱狂之初證也 陽明病 胃家實 不更衣者 鬱狂之中證也 陽明病 潮熱 狂言 微喘直視者 鬱狂之末證也 太陽病 發熱惡寒 汗自出者 亡陽之初證也 陽明病 不惡寒 反惡熱 汗自出者 亡陽之中證也 陽明病 發熱汗多者 亡陽之末證也 蓋 鬱狂證 都是 身熱 自汗不出也 亡陽證 都是 身熱 自汗出也

51. [東醫壽世保元-醫源論]에서 이제마는 장중경의 육경병을 사상의학의 4체질인 병증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六條病證中 三陰病證 皆少陰人病證也 少陽病證 卽 少陽人病證也 太陽病證 陽明病證則 少陽人 少陰人 太陰人病證 均有之而少陰人病證 居多也” 따라서 태음인의 경우 태양병은 표병이요, 양명병은 리병에 해당한다.

不通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 점을 장중경이 말한 태양양명, 소양양명, 정양양명의 세 가지 양명병이 발생하는 과정과 비교해 보면 태양양명과 소양양명 또한 태양병에서 양명병으로 전속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소음인의 대변불통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비해 (東醫壽世保元)의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에 나타난 태음인 大便不通은 상한의 태양병 표증 증세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裏熱證이 발현되면서 大便不通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태음인 大便不通은 장중경이 말한 양명병 중 정양양명의 증상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장중경과 이제마의 大便不通에 대한 처방을 비교해 보면, 장중경은 (상한론)에서 大便不通을 '어떤 과정에 의해 체내의 진액이 고갈되어 나타나는 熱證'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처방은 대황을 主劑로 한 寒性瀉下劑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內經)에서 말한 "寒者熱之 熱者寒之"의 陰陽觀的 원칙이기도 했다. 그가 제시한 대승기탕은 강력한 寒性瀉下劑로서 그의 醫論에 적합한 처방이긴 했다. 그러나 "...환자가 微汗이 있고, 위 속이 건조해서 大便不通이 5,6일에서 10여일에 이르며, 해질 무렵에는 열이 심히 오르고, 오한은 없으나 허깨비를 본 것처럼 헛소리를 할 경우에 이 약을 쓰면 신효하다. 만약 병세가 극심하여 발작하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옷과 이불을 더듬으며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불안해하며, 약간 숨이 차고 눈동자를 곧추세우는 것이니 이런 경우에 이 약을 쓰면 맥이 弦한 사람은 살아나고 맥이 澁한 사람은 다 죽는다고 한다. 대개 이 처방은 태양병이 양명

병으로 옮겨져서 大便不通이 5,6일에 이르고, 해질 무렵이면 심한 열이 오르는 것(潮熱)에만 쓸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쓰지 못한다..."(본론에 인용한 문장임, 각주 42번 참고)의 경우에서 보듯 대승기탕을 썼을 때 오히려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이는 비단 장중경만의 허물이 아닌 과거 辨證醫學이 가진 한계이기도 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병증에 대해 그때그때 임기응변하는 처방만으로는 병증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었던 것이다⁵²⁾.

그러나 대승기탕도 일정정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대승기탕의 처방구성을 살펴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아래 세 가지 승기탕의 처방구성 비교표 참고) 즉, 대승기탕의 구성약재인 厚朴과 枳實은 본초학적으로 볼 때 하행하는 성질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는 소음인의 음실지기를 아래로 끌어 내려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소음인의 대변불통은 물론 가슴멀이 답답한 滿을 해소시키는데도 한 몫을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후박과 지실은 그 하행하는 성질로 인해 태음인의 호산지기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므로 태음인의 병증 개선에는 오히려 羸材로 작용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장중경이 비록 체질에 대한 식견은 없었지만 그의 임상경험을 통해 이와 같이 처방구성을 달리 했을 수도 있다. 이 점 또한 看過해서는 안되리라 생각한다.

표 2. 세 가지 승기탕의 구성비교, 단위 : 돈錢

조위승기탕	대황4	망초2			감초1
대승기탕	대황4	망초2	후박2	지실2	
소승기탕	대황4		후박1.5	지실1.5	

52. 혹 대단히 정확하게 증상을 파악한다면 병증의 모든 것을 알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세밀한 변별력이 과거 변증의학을 익힌 모든 의사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아니며, 그럴 수도 없었다.

한편 이제마는 소음인이 체질특성상 陽暖之氣의 보존이 관건인 한성체질임에 입각하여 비록 표현상 열성병증에 수반되는 大便不通이라 할지라도 熱性瀉下劑인 파두로 적체를 해소시키고 이어서 팔물근자탕으로 소음인의 陽暖之氣를 복돋는 한편 진액을 보충하는 처방을 썼던 것이다. 또한 태음인에 대해서는 大便不通을 태음인 裏熱證으로 파악하여 寒性瀉下劑인 대황을 주재로 하는 葛根承氣湯, 淸肺瀉肝湯 등의 처방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는 병증의 음양에 앞서 체질의 음양을 밝힌 것이니, 이로써 보다 종합적인 병증의 이해는 물론 정확한 처방을 강구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상의 비교를 통해 이제마의 사상의학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병증에 대해 그때그때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 변증의학의 치료방법에 비해 체질의 음양을 판별하여 그 병증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전면적인 치료방법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V. 結 論

이상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1. 대승기탕증과 소승기탕증의 공통점은 모두 태양병에서 양명병으로 傳變되어졌다는 점이다.
2. 소음인 大便不通은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한의 태양병과 유사한 鬱狂初證과 亡陽初證을 거쳐서 상한의 양명병과 유사한 울광과 망양의 中證, 末證에 이르러 증상이 발현되는 특징이 있다.
3. 따라서 이제마가 [동의수세보원]의 '張仲景傷寒論中少陰人病經驗設方藥二十三方'에 대승기탕과 소승기탕을 포함시킨 것은 그 적응증이 태양병에서

양명병으로 傳變된 것이라는 점에서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에서 밝힌 소음인의 大便不通의 병리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4. 조위승기탕증은 [상한론]에서 말하는 태양병을 거치지 않고 바로 양명병이 발현된 것이다.
5. 태음인 大便不通은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한론]에서 말하는 태양병증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한의 양명병증과 유사한 裏熱證으로 발현된 것이다.

6. 따라서 이제마가 [동의수세보원]의 '張仲景傷寒論太陰人病經驗設方藥四方'에 조위승기탕을 포함시킨 것은 그 적응증이 태양병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양명병증으로 발현된다는 점에서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에서 밝힌 태음인의 大便不通의 병리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7. 본초학적 관점에서 세 가지 승기탕의 처방구성을 비교해 보면 대승기탕과 소승기탕에는 후박과 지실이 가미되어 있고 조위승기탕에는 가미되어 있지 않다. 후박과 지실은 하행성 약물로서 소음인의 陰實之氣를 내려주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태음인에게는 오히려 호산지기를 약화시키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도 이제마가 대승기탕과 소승기탕을 '張仲景傷寒論中少陰人病經驗設方藥二十三方'에 포함시키고, 조위승기탕은 '張仲景傷寒論太陰人病經驗設方藥四方'에 포함시킨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8. 이제마는 소음인 大便不通의 처방으로 열성사하제인 파두를 제시했는데, 이는 소음인의 腎大脾小한 체질로 인해 陽暖之氣를 보존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9. 이제마는 태음인 大便不通의 처방으로 한성사하제인 대황을 제시했는데, 이는 태음인이 肝大脾小한 체질로 인해 裏熱證으로 大便不通이 올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0. 과거 辨證醫學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병증을 놓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陰陽을 판단하여 치법을 제시하였는데, 이제마는 그 미비함을 보충하여 병증의 판단에 앞서 病程의 전체과정을 통해 不變하는 체질의 陰陽을 우선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변화무쌍한 병증의 음양한열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하였다.

참 고 문 헌

1. 李濟馬 著, 李乙浩·洪淳用 譯: 四象醫學原論. 서울, 행림출판사, 1973.
2. 湖北中醫學院: 傷寒論. 人民衛生出版社, 1985.
3. 蔡仁植: 傷寒論譯註, 서울, 고문사, 1980.
4. 許浚 著, 여강출판사: 國譯東醫寶鑑 (CD version), 1994.
5. 許浚 著, 남산당: 原本東醫寶鑑, 1980.